

# 단시조로 풀어낸 사계절의 풍경...“시에에 담긴 진정성 전달됐으면”

하순 출신 손형섭 원로 작가  
자연·인생 담은 ‘새벽’ 출간



새벽  
손형섭  
서적

정언(正彦) 손형섭 원로 작가가 자연과 인생, 지역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은 제2시집 ‘새벽’ (도서출판 서적)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단시조 100편이 실렸으며 1부 ‘첫차’, 2부 ‘고향의 강’, 3부 ‘가을 산책’, 4부 ‘첫눈’ 등 사계절을 주제로 한 68편과 5부 ‘인연’, 6부 ‘전라도여’에 담긴 32편이 더해졌다.

손 작가는 시인의 말에서 “시조는 정형물에 더한 민족 고유의 시”라며 “고려 말부터 조상들

이 즐겨 노래한 멋과 풍류가 담긴, 우리의 큰 자랑인 문학적 양식이다. 단시조 한 편을 쓰기 위해 얼마나 깊은 사색과 성찰이 필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단아한 시어에 담긴 진정성이 독자들에게 닿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제작 ‘새벽’은 “아름이/ 밀려가고/ 하늘이 열리고요// 달빛이/ 물러가자/ 별빛도 달아나고요// 어스름/ 저편에서/ 새소리 들려와요”라는 구절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찰나의



손형섭 원로 작가

정적과 생명의 움직임을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언어로 풀어냈다.

삶의 통찰을 담은 작품들도 돋보인다. ‘빈 항아리’에서는 “몇천 번/ 다그쳐야/ 등글게 되는 걸까// 몇천 도/ 견뎌 내야/ 소리가 나게 될까// 몇천 년/ 기다려야만/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노래하며, 단시조 특유의 간결한 형식을 통해 삶의 인내와 성숙의 과정을 성찰한다.

‘아버지 무덤가’는 “허물고/ 새로 짓는/ 고속도로를 따라// 산등선/ 베어내고/ 너른 길을 만들었다// 아버지/ 묻힌 산도/ 꺾여 나가버렸다”는 시구로, 산업화와 개발 속에 사라진 자연과 가족의 기억을 애뜻하게 환기시킨다. 시인은 이처럼 개인의 서정을 넘어 공동체적 기억과 세상의 흐름을 함께 담아낸다.

1942년 하순 출신인 손형섭 작가는 광주상고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

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목포대학교에서 대학원장·사회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손 작가는 2007년 정년퇴임 후 고 문병란 시인의 서문학회연구소에서 시 창작을 수강하며 뒤늦게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2017년 ‘문학예술’로 시와 수필 부문 신인상을 받고 문단에 데뷔한 뒤, 시집 ‘별빛’, ‘파도’, ‘만주’, ‘겨울 나그네’ 등과 수필집 ‘삶의 흔적’, ‘추억’ 등을 펴냈다. 2023년 ‘월간문학’ 시조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첫 시조집을 상재하며 단시조 창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 시인협회 문학작품상, 도서출판 서적 문학상, 한국문학비평가협회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이사와 국제펜 한국본부 이사, 광주시인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조혜원 기자

## 5·18문학상에 한정현 소설집 ‘쿄코와 쿄지’

시상식 24일 전일발당245

5·18기념재단과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이 공동 주관하는 5·18문학상 본상·신인상 수상작이 결정됐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기성작가의 단행본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본상 5·18문학상 본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본상 후보작 8편 중 한정현 소설집 ‘쿄코와 쿄지’를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본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이 작품이 5·18문학의 경신에 값하고 있으며, 그 성취가 연쇄적으로 후속 세대의 글쓰기를 추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품을 이끌어가는 서술자의 당대적 감수성과 여성, 성소수자, 폭력의 문제를 비롯해 연결과 연대에 대한 모색이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정현 작가는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소설집 ‘소녀 연애인 이보



나’, 중편소설 ‘마고’,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등의 작품을 펴냈다. 2021년 ‘문학과 사회’에 실린 ‘쿄코와 쿄지’ 단편으로 부마항쟁문학상을 수상했다. 올해 5·18문학상 신인상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시 776편과 소설 112편, 아동문학 등화 63편, 동시 146편이 접수됐다.

접수작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 부문 조모현 ‘꽃잎 속의 총구’ △소설 부문 최현숙(필명 최현무) ‘땀 후이를 위하여’ △아동문학 부문 박정희 ‘긴긴밤 여우고개’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한편 5·18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전일발당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수민 기자

## 은퇴 후 손주 가르치겠다는 꿈, 수능영어 교재로 실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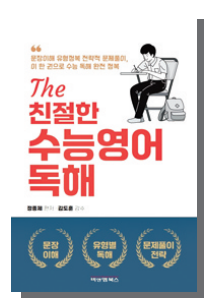
은퇴 후 손주에게 영어와 수학을 직접 가르치겠다는 꿈을 품었던 정종제(사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장이 수능 대비 영어 독해 교재인 ‘The Chilled English Reading’ (비엔엠북스)

를 출간하며 목표를 실현했다.

“The Chilled English Reading”은 제목 그대로 수능영어에서 영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필요한 구문 분석과 수능 지문 독해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은퇴 후 3년간 학생 과외를 해온 저자는 영어 독해 교육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그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교재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결혼마를 배우는 외손주를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로 발전하게 돼 기쁘다”면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과외를 하는 과정에서 수



The Chilled English Reading  
수능 영어 독해  
정종제  
비엔엠북스

능 영어 독해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책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같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같은 시간 공부량으로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행정부 공무원 생활만 30여년을 해온 저자가 전혀 다른 영역인 영어 교재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해의 근무 경험이었다.

정 전 부시장은 “정부에서 보내준 미국 유학 생활 동안 일상에서 외국인과의 교류하고 논문을 쓴 것, 그리고 파리에 있는 OECD 한국대표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며 영어로 토론했

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책은 영어 구문 분석과 독해 능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재다. PART 1에서는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루고, PART 2에서는 구문 분석의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PART 3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요 대상을 하지만, 수능 영어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2, 고3 학생(6등급~3등급 수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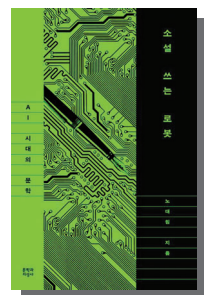
교재 감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김도훈 교수가 맡았다.

정종제 전 부시장은 광주인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 행정대학원,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마쳤다. 제32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대표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조혜원 기자

## AI 교육 연구자 노대원 신간 ‘소셜 쓰는 로봇’

문학평론가이자 AI 교육 연구자인 노대원 작가가 신간 ‘소셜 쓰는 로봇’ (문학과지성사)을 출간했다. 책은 생성형 AI, 포스트휴먼, 인류세를 축으로 문학과 기술의 접점을 사유하는 비평서다. 노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희미해진 오늘날 문학의 의미와 창작의 본질을 묻는다.

노대원 작가는 지난 2023년 ‘몸의 인지 서사학·질병과 치유의 한국 소설’에서 국내 최초로 AI 지원 글쓰기를 활용한 학술서를 펴낸 바 있다. 이번 저작에서는 인간의 글쓰기가 AI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문학의 형식과 수용 방식에도 근본적 전환을 예고한다고 진단한다. 생성형 AI는 인간 창작자를 위협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창작의 도구이자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을 여는 통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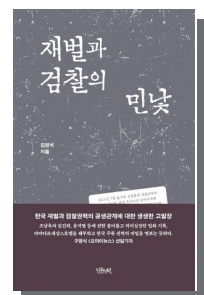
노 작가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완성은 창작자만의 몫이 아닌 향유자의 몫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3월,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400여 명의 배우와 감독들이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반대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 작가는 기술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혜원 기자

## 윤석열 삼부토건 유착 의혹 공개 ‘재벌과 검찰~’

삼부토건에서 28년간 사무직 노동자로 일한 김영석 작가가 한국 사회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신간 ‘재벌과 검찰의 민낯’ (인문서원)을 출간했다. 오랜 세월 기업 내부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경험과 다양한 제보 자료, 공공기록 등을 바탕으로 삼아, 재벌과 검찰 간의 은밀한 유착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한 책이다.

작가는 자유당 정권 시절부터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쳐 문민정부 이후까지 삼부토건의 옛 사주 조남욱 일가가 어떻게 극우 정치 세



력, 주술 집단, 검찰 권력과 결탁하며 기업을 유지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고 결국 권위주의의 폐단을 답습하다 몰락하는 과정까지 치

밀하게 그려낸다. 한국 사회의 기울어진 권력 구조를 비판적으

로 성찰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호소를 담은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극우와 주술의 회장님’, ‘라마다르네상스호텔’ 같은 상징적인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검경 유착의 실상을 파헤친다. 아울러 윤석열과 그 일행의 검찰 내 성장, 삼부토건 관련 사건 개입 의혹, 그리고 저자의 고발 투쟁과 검찰 정권의 탄생까지 생생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정치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며, 과거 권력의 폐해를 반문교사로 삼아 검찰 개혁과 재벌개혁 같은 시대적 과제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조혜원 기자

### 새책 나왔어요

NEW

#### 도시문화학자 김시덕의 강남



오늘날 한국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는 곳을 고르라면 단연 강남일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토허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불패 신화를 써 내려간 동시에 싱크홀이 집중된 곳으로 지목되며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았다. ‘7세 고시 금지법’이나 ‘판자촌 철거’ 같은 예민한 사회문제 또한 강남을 배경으로 한다. 강남은 ‘집값’만으로 수식할 수 없는 다양한 맥락을 가진 공간이다. 이 특별한 공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인문학자의 발걸음을 따라 강남이라는 세계에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간다. 저자는 강남 3구 곳곳에서 살아본 경험에 더해, 당사 현장에서 새롭게 발굴한 각종 문헌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 강남의 실제 모습을 복원해낸다. 인플루엔셜, 김시덕 지음.

#### 더 퍼스트



‘부동산 1세대 재야의 고수’로 불리는 투자 전문가 유나바머 인사이드집. 평범한 직장인에서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까지, 유나바머의 자본주의 테크트리를 토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본 게임의 법칙을 6단계로 전한다. 근로 소득의 수익 창출법부터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까지, 시장의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부의 사다리를 완성하는 핵심 원칙을 담았다. 30대 초반 사업과 투자를 시작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까지 총망라해, 직무·나이·자산 상황에 특화된 ‘맞춤형 자본 게임’을 설계하도록 돕는다. 상위 1% 자수성가 부자들의 성공 로드맵을 엿볼 수 있다. 위즈덤하우스 유나바머 지음.

####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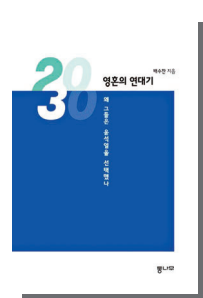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창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와 편리함과 화려함을 찾아 도시로 몰려든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양극화에서 오는 지방소멸론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며 OECD 회원국들 대다수와 중진국들이 함께 겪고 있는 딜레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 11개 국가의 지방소멸 현상과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의 경우 지방 인구감소와 마을 공동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변화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사회 변화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락방, 최인숙 지음.

#### 1일 1도전 말놀이 글쓰기



어린이들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쓸 내용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어떤 문장으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글을 쓰라고 하면 오히려 자신감만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놀이를 하는 이유는 어휘력과 문장력, 창의력, 협동심, 소통 능력 등을 두루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놀이를 통해 글을 쓰니 재미있고,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해소된다. 책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 보거나, 반대말 짝을 찾아보거나,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로 글을 써 보거나, 속담을 바꿔 보거나 하는 등 50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가문비어린이, 임태리 지음.

#### 2030, 영혼의 연대기



여자가 한을 품으면 노후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었다. 이제는 이대남이 한을 품으면 윤석열 같은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말이 생겨났다. 현재 우리 사회 20대 남성들의 정치의식은 70대 노인층과 동일하다고 한다. 책은 1999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혼을 활리고 간 열 가지 젠더 정치 이슈들을 복기한다.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준석 현상, 윤석열 당선, 답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그것이다. 누구든 영원히 배워야 하는 시대다. 청년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들을 이해하려고 시도라도 해보고 싶다면 스스로 깨어날 각오를 해야 한다. 온라인 문화의 집은 그들, 청년남성들의 좌절의 깊이를 체감해야 한다. 통나무, 배수찬 지음.